

# 2018.2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8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 1. 회의개최

| 일 시       | 장 소           | 참석인원 수 |     | 비 고 |
|-----------|---------------|--------|-----|-----|
|           |               | 위 원    | 방송사 |     |
| 2018.2.27 | 대전MBC<br>대회의실 | 6/10   | 5   |     |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신성철, 김종문, 정철상, 이상진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박선자 편성제작국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사업국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 방송<br>편성 | 방송프로그램 |    |                |    |    | 자체<br>심의규정 | 합계 |
|----------|--------|----|----------------|----|----|------------|----|
|          | 보도     | 교양 | 연예·오락<br>(스포츠) | 기타 | 소계 |            |    |
| 1        | 7      | 4  | -              | 4  | 15 | -          | 16 |

### 나. 사업자 반영(건수)

| 구 분 | 수 용 | 의견참고 | 반 론 | 계  |
|-----|-----|------|-----|----|
| 건 수 | 12  | 4    | -   | 16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 구분 |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 조치내용   | 제시 월 |
|----|---|--|------|
| 계  | 9건  | 9건   | 2월   |
| 보도 | 뉴스 인포그래픽 활용 필요                              | 뉴스데스크 “한파에 한랭 질환자 증가”(2/6), “식수원 대청호에서 요트”(2/22), “대전천변 고속화도로 통행료 쟁점”(2/24) 등 인포그래픽 활용                   | 2월   |
| 보도 | 뉴스 통계인용 보도 단순하게 전달하는데 그치지 말고 통계에 담긴 맥락 살펴보길 | 뉴스데스크 “대전상가 권리금 2년 새 6% 추락”(2/16) “서울 지역 주택가격차 2년 새 최대”(2/18) 배경설명과 당해 이유 상세히 보도                         | 2월   |
| 교양 | 시사프로그램 사안의 심층적 접근 필요                        | 시사플러스 “안전사각지대, 아파트 단지내 도로(2/8)” 등 심층적 취재   | 2월   |
| 보도 | 시사토론프로그램 주제 선정 시 지역의 관심 이슈 접근               | 시사토론프로그램 “불 붙은 미투운동(2/11), 갑천천수구역 과제는?(2/25)” 등 지역의 현안문제 주제로 토론  | 2월   |
| 교양 | 생활정보 프로그램 리포터의 역할 프로그램 소재에 맞게               | 생활정보프로그램 “리나의 충청여지도”(2/8) -서해의 별미 새조개 등에서 프로그램에 적절하게 리포터 역할  | 2월   |
| 보도 | 화재예방 지속적 보도로 주위환기를                          | 뉴스데스크 “빈집 화재 애완동물 주의”(2/23) “요양병원 불, 직접 대피해 봤습니다”(2/27) 등 보도   | 2월   |
| 보도 | 단순나열식 보도 대신 기획취재, 입체적 뉴스 발굴                 | 뉴스데스크 “대청호에서 요트(2/22)” “유료도로 기능상실vs시민부담”(2/24) “도심 주유소가 사라진다”(2/25) “건물안전관리 허술, 갑천 삼 최초 포착”(2/28) 등 기획보도 | 2월   |
| 교양 | 생활정보 프로그램 진행자의 언어 주의 예)애정하는 애장품             | “생방송 아침이 좋다” 생활정보 프로그램 진행자 교육 강화   | 2월   |
| 교양 | 건강 프로그램 코너 영상 배경음악 적절한 음악 사용하길              | “건강플러스” 코너인 건강밥상 음식 레시피 소개 시 영상과 맞는 음악 활용  | 2월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 요청 내용 | 조치 내용   | 조치일자 | 비고 |
|-------|---------|------|----|
|       | 해당사항 없음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 성명 | 생년월일 | 전·현직    | 변동사유 |
|----|------|---------|------|
|    |      | 해당사항 없음 |      |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 요청자(단체) | 공개내용         | 공개방법 |
|---------|--------------|------|
| 없음      |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 홈페이지 |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7. 5. 01. ~ 2018. 4. 30.

| 구분  | 성명  | 전·현직                  | 추천단체                | 추천부분   | 비고(임기)                |
|-----|-----|-----------------------|---------------------|--------|-----------------------|
| 위원장 | 신성철 | KAIST총장               | 한국과학기술<br>한림원       | 과학기술단체 | 17.05.01-<br>18.04.30 |
|     | 송길현 |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 목요언론인클럽             | 언론관련단체 | 17.05.01-<br>18.04.30 |
| 위원  | 김종문 | 한화생명 충청지역본부장          | 대전상공회의소             | 경제단체   | 17.05.01-<br>18.04.30 |
| 위원  | 함진호 | ETRI 표준연구본부<br>책임연구원  | ETRI                | 과학기술단체 | 17.05.01-<br>18.04.30 |
| 위원  | 정철상 | 호서대학교<br>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 (재)청소년과<br>사랑사랑충남지회 | 청소년단체  | 17.05.01-<br>18.04.30 |
| 위원  | 이상진 |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충남연구원               | 문화단체   | 17.05.01-<br>18.04.30 |
| 위원  | 이승선 |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br>교수    | 한국방송학회              | 언론관련단체 | 17.05.01-<br>18.04.30 |
| 위원  | 강은혜 | 대전YWCA<br>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 대전YWCA              | 소비자단체  | 17.05.01-<br>18.04.30 |
| 위원  | 신종성 |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 대전상공회의소             | 경제단체   | 17.05.01-<br>18.04.30 |
| 위원  | 김은주 | 변호사                   | 대전지방변호사회            | 변호사단체  | 17.05.01-<br>18.04.30 |

\*신성철, 송길현, 김종문, 함진호, 김은주 위원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2월)

| 구분 |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교양 | <p>시사플러스(2월 22일)의 “표류하는 선거구 확정, 흔들리는 지방자치” 편을 시청하였다. 프로그램 초반부에 ‘기초의회 무용론’에 대한 언급을 해서 공감을 했는데,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지방자치나 직접민주주의에 관한 원론적인 인터뷰 내용만 보여주면서 바로 기초의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본론으로 넘어가서 기초의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주제선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루한 면이 있어서 과연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까 의문이 들었다(김은주).</p>  | <p>기본적으로 시의적절한 주제였다고 판단한다. 다만, 주제의 구성에 있어 조금 더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효과적인 전달이 되도록 하겠다.</p> <p>시사프로그램이 시청률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 장르는 아니지만 시청자들의 평가 중 하나가 시청률인 것 또한 인정한다. 주목도 높은 프로그램 제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p> |    |    |    |
| 교양 | <p>시사플러스(2월 8일) “안전지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라는 타이틀로 아파트 내 도로 문제를 다루었다.</p> <p>수차 느끼는 바이나, 인터뷰 화면은 1.2배속 정도로 빨리 감기를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인터뷰를 보면서 함께 마음이 아팠지만, 말을 잘 잊지 못하는 모습을 길게 보는 게 괴로웠다. 또한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라 킥보드를 탄 어린이를 치어 그대로 진행하여 어린이는 차 밑으로 들어갔는지 안보이고 바닥에는 피인지 무엇인지 액체가 긴 선으로 쭉 이어지면서 흘러지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 주는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잘 판단이 안된다. 충분히 생각하고 내보낸 화면이라고 생각하겠다. 중간 중간에 변호사가 빠른 호흡으로 설명하는 부분 때문에 법 위반 여부가 이해가 잘 가서 효과적이었다. 반대 입장에서도 주제를 다루어 줬고, 법률개정안까지 다루어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잘되었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김은주).</p> | <p>사실에 입각한 취재와 편집이 중요한 시사프로그램의 특성 상 인터뷰 화면의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편집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p> <p>화면의 구성에 있어 자칫 혐오감을 조성하거나 충격적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p>  | ○  |    |    |
| 보도 | <p>뉴스데스크(2월24일)에서 천변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 시 2,200억 원의 부담이 추산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충격적이었다. 왜 그런지 심층적인 후속보도를 해줘서 자</p>  | <p>교통과 세금 등 시민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도하겠다.</p>   | ○  |    |    |

|    |  |   |   |  |
|----|--|---|---|--|
|    | 세하게 궁금증을 해소해주었으면 좋겠다(김은주).   |   |   |  |
| 교양 | TV 스튜디오 생방송 프로그램 “경청”은 양방향 소통을 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보다 주민과 가까이 다가가는 형태로 운영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에 대하여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포맷의 방송 형태이다.<br>이러한 방송 형태가 널리 확산되어 갈등이 증폭되기 이전에 서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화합의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br>시청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기를 바란다. 포맷과 구성 방식에서 시청자참여 형태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함진호).   | 스마트시대에 부합하는 방송 포맷이라는 평가에 감사드린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방송을 제작했는데 지방선거 이후 조금 더 확대해 지역방송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도록 하겠다.<br><br>그 외 다양한 포맷에 대한 연구 작업과 현실 적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  |
| 기타 | 대전MBC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2018년으로 업데이트 안 된 상태로 2017년 자료들이 남아 있다. 2018년에 맞게끔 정리할 필요가 있다(신종성).  | 조속히 수정하도록 하겠다.  | ○ |  |
| 보도 | 시사토론M(2월18일)에서 “일자리 공정성 갈등,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일자리 공정성 문제,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문제 등을 다루었다.<br>패널로는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황희중(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강현(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 3명이 출연하였다.<br>토론이라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자신의 논리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토론프로그램에서는 패널 전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 정책 홍보용 프로그램을 보는 듯하였다.<br>패널섭외를 토론 프로그램 형식에 맞게 찬반 입장이 있는 인사를 섭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신종성). | 토론 프로그램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토론이라는 포맷에 맞게 찬반 의견을 통해 시청자들이 다양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도록 패널 섭외와 아이템 풀 등 여러 가지 시도를 기획 중에 있다. 앞으로 생동감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 ○ |  |
| 보도 | 뉴스투데이(2월5일)에 새로운 코너를 선보였다. “리빙 특특”이라는 코너에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의 대기질이 좋지 않은데요. 생활 속 대처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라고 하면서 마스크 선택법, 면역력 강화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 등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새로운   | 아침뉴스의 경우 전체 시간이 지난해부터 대폭 증가했다. 아침이라는 시간적 특성을 반영 정보성 뉴스코너를 신설하였고 또 개발 중에 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 기획 코너로 신선했었다. 정보 또한 유익하였다. 뉴스의 새로운 변화를 보는 듯해 반갑다. 좋은 변화라고 생각한다(신종성).  |   |  |   |
| 보도 | 뉴스데스크(2월26일)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과 관련 소식을 2개의 연속 아이템으로 다루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또 흔들(2분 7초)”, “특혜논란 여전, 공영개발론 부상(2분 14초)” 기사 분량 또한 2분이 넘어 의미가 있었다. 2017년 뉴스와 비교해볼 때 보도 행태에 있어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보도국 내부의 기자 인력이 적어 양질의 뉴스를 계속 생산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든다(이승선). | 핵심 이슈의 경우 뉴스 분량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시청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구체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다.  |  |   |
| 편성 | “8시 뉴스데스크” 시간대와 “JTBC 뉴스룸” 시간대와 겹친다. 이 시간대에 SBS 뉴스도 포진해 있어 그야말로 시청률 경쟁이 엄청나다. “JTBC뉴스룸”과 “MBC 뉴스데스크”를 비교해 볼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JTBC 뉴스룸”으로 채널이 돌아가면 지역시청자들은 지역뉴스를 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본사와의 논의를 통해서 뉴스데스크 방송시간대를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이승선).        | 뉴스 시간 조정은 편성 전략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사안이다. 본사와 함께 각 부문 간 긴밀하게 검토해 최적의 편성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  | ○ |
| 기타 | 대전MBC는 최근 자사 출신 사장을 맞이했다. 향후 자사 출신 사장이 계속적으로 배출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전MBC 구성원 이외 외부의 인사도 배치하여 이를 활용하기를 권유한다(이승선).  | 본사와 타 지역MBC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적 정착을 위한 방안이 없는지 강구해 보겠다.  |  | ○ |
| 기타 | 지역의 인쇄매체를 통해 대전MBC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CEO가 자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역의 신문방송 관련 학과 대학생들과도 교류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격의 없는 토론이나 특강 등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이승선).   | 특집 프로그램 편성 시 대전MBC 출입기자들과 접촉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다. 관련 기사가 인쇄매체를 통해 전달되어 홍보하고 있다. 지역 대학생들과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  | ○ |
| 보도 | 지역의제 설정 기능과 그에 대한 비판 기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정사안을 심층취재를 하다 보면 소송에 연루되기도 한다. 공적 사항에 불가피하게 소송사건에 연루되면 개인 차원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이승선).  | 보도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확인 및 영상 리뷰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  | ○ |

|                  |   |  |   |  |  |
|------------------|---|--|---|--|--|
| <p><b>교양</b></p> | <p>며칠째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날씨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2월 12일)에서 박찬송 기상 캐스터가 “오늘도 영하 9도로 따듯한 옷차림 필요할 만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는 예보를 하였는데 정작 박찬송 기상캐스터의 의상은 너무 가볍고 추운 느낌마저 들었다. 기상캐스터의 옷차림만으로도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할 만큼 대부분 기상 캐스터들의 의상은 날씨에 걸맞게 시의적절한 옷을 입고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날씨와 어울리는 적절한 의상을 선정해주길 바란다(강은혜).</p> | <p>프로그램 담당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조속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p>  |   |  |  |
| <p><b>기타</b></p> | <p>편성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편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부딪치는 첨예한 사안이 없다하더라도 자주 만나야 한다고 본다. 편성위원회가 유아유아 하는 일 없이 존치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편성규약의 개정이 있으면 편성규약 개정일자를 적시하기 바란다(이승선).</p>  | <p>편성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편성규약 개정 시 개정일자를 적시하도록 하겠다.</p>   | ○ |  |  |
| <p><b>보도</b></p> | <p>전국 아침뉴스를 보면 상단에 오늘의 날씨와 지역별 기온이 나온다. 로컬 아침뉴스로 전환되면 날씨와 기온이 나타나지 않는다. 본사 아침뉴스와 같이 로컬 아침뉴스에서 날씨와 기온 처리가 어려운가?(송길현).</p>  | <p>뉴스 화면에 등장하는 그래픽을 추가 운용하려면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 하단 티커처럼 지역별 날씨와 기온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장비가 더 필요한데 배치를 검토하겠다.</p> | ○ |  |  |
| <p><b>보도</b></p> | <p>아침뉴스를 진행하는 여자 앵커를 보면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활력이 없어 보인다. 하단 자막을 살펴보면 설명식으로 자막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 자막을 보지 못하면 현재 자막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자막시스템을 살펴보고 싶겠다(송길현).</p>  | <p>보다 활력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다. 자막의 경우 많은 내용보다는 우리 지역의 소식을 보다 간결하게 전하는 데 포인트를 두겠다.</p>                     | ○ |  |  |